『효경언해』의 한자음 연구

유근선*

|| 차 례 ||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
Ⅳ. 『효경언해』의 한자음
Ⅴ.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효경언해』의 원간본인 만력본(1590)과 강희본(1666)에 나타나는 한자음 표기를 비교·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를 정리한 다음,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과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성모와 운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력본의 한자음이 강희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만력본에서는 日母를 '△'으로 표기하고 종성에 'ㆆ'을 사용한 반면, 강희본에서는 日母와 종성 'ㆆ'을 'ㅇ'으로 표기하였으나 종성에 'ㆆ'이 쓰인 용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또한 가령 '諸侯'의 경우 만력본에서는 일관되게 '諸져侯후'로 주음되었지만 강희본에서는 '諸져侯후, 諸졔侯후'가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경우는 만력본에서도 日母를 'ㅇ'으로 표기하였으며, 두 판본 모두에서 '동뉴(同類), 태우(大夫)' 등과 같이 음운 현상이 반영된 표기가 쓰인다. 끝으로 성조와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용운장학재단과 연세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과제번호: 2022-11-0425, 2022-12-0025).

관련해서는 한어 중고음의 상성과 거성이 만력본에서 출현하는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유경 언해, 효경언해, 한자음, 한자어, 성모, 운모, 성조

Ⅰ. 서론

『효경(孝經)』은 십삼경(十三經)에 속하는 유교 경전으로, 『효경간오(孝經刊誤)』, 『효경대의(孝經大義)』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효경간오』는 송나라 주희(朱熹)가 『효경』의 내용을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4장으로 나누어 간오(刊誤)한 문헌이고, 『효경대의』는 원나라 동정(董鼎)이 『효경간오』에 주를 더하여 편집한 문헌인데, 이 『효경대의』에서 경(經)과 전(傳)만을 뽑아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이 바로 『효경언해』이다.

보통 유경 언해의 중간본은 원간본을 거의 그대로 따르지만, 강희 5년(1666)의 내사기[1]가 있는 『효경언해』 중간본에서는 표기, 구결, 어휘 등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안병희(1992:465)에서는 이 중간본을 17세기 후반의 국어사 자료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같은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효경언해』에 대해서는 이본 간 비교 연구가 두루 행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자음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유경 언해의 한자음 표기는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1)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參贊宋浚吉孝 經諺解一件 云云

한자음과 관련해서도 『효경언해』의 원간본과 중간본 비교를 통해 시대와 이본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효경언해』의 이본 가운데 만력 18년(1590)의 내사기[2)]가 있는 원간본과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을 중심으로, 한자음의 성모, 운모, 성조를 검토하여 그 출현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검토

『효경언해』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본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안병희(1985/1992)에서는 『효경언해』 원간본과 강희본에서 확인되는 구결, 번역 양상, 어휘의 차이를 간략히 살피는 한편, 『효경구결』에서 차자로 표기된 구결을 『효경언해』의 것과 함께 검토하였고, 김해정(1986)에서는 원간본, 강희본, 태인본(泰仁本, 1803), 천일서관본(天一書館本, 1919)의 표기, 음운, 형태, 어휘를 비교하였는데, 한자음과 관련해서는 원간본의 '△, ㆆ'이 후대본에서는 'ㅇ'으로 표기되며, 특히 천일서관본에는 원순모음화, 구개음화가 반영된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여찬영(2003a, 2003b, 2004)는 『효경언해』에 관한 일련의 연구이다. 여찬영(2003ab)의 연구 대상은 원간본과 철종대에 중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문각 영인본으로, 여찬영(2003a)에서는 원문 구결과 조사 '을/ᄋᆞᆯ, 은/ᄋᆞᆫ' 등의 혼용을 검토하였고, 여찬영(2003b)에서는 표기, 어휘, 어미, 조사 등의 차이를 번역 비평적 관점에서 살폈다. 이를 통해 홍문

2) 萬曆十八年九月日 內賜司憲府掌令張雲翼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 云云

각 영인본이 단순한 중간본이 아니라 중간본 제작자들의 상당한 수정과 개입이 있었던 문헌이며, 전체적으로 원간본이 홍문각 영인본보다 일관성 있고 정교하게 언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여찬영(2004)에서는『효경언해』의 원문을『효경주해(孝經注解)』,『초려효경(草廬孝經)』,『효경주소(孝經註疏)』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효경언해』에 있는 협주의 상당수가 효경류 주석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지적하였다.[3)]

또한 이지영(2012)에서는 원간본, 강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古 1236)을 중심으로 구결과 언해 양상을 비교하여, 표기 및 음운에 있어서는 원간본과 강희본의 양상이 동일하고 국립도서관본에서 변화가 나타나며, 구결, 문법, 어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강희본에서 일어난 변화가 국립도서관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옥영정(2012)에서는『효경간오』,『효경대의』,『효경언해』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 이루어졌으며,『효경언해』에 대해서는 활자본인 만력본(존경각 소장본)과 목판본인 강희본을 소개하였는데, 강희본은 강희 5년의 내사기가 있는 규장각본과 계명대본이 남아 있으며, 이와 동일한 판본인 장서각 소장본(K1-140, A8 5A)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규장각 소장본에 대해서는 <古 1328-1>과 <古 1328-2>를 제시하였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 <古 1328-1>의 간행연대는 1803년이며, 康熙五年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의 청구기호는 <古1328-1A>이

3) 여찬영(2004:104-105)에서는 鄱陽 董鼎注의『효경대의』(통지당경해 35 수록본)에서 '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17b)'로 쓰인 것이『효경언해』에서는 '弗→不'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는데, 강희 5년의 내사기를 가진 규장각 소장본『효경대의』에는(청구기호: 古1328-1A) 언해본과 동일하게 '不'(46b-47a)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다. 그런데 이는 언해본이 아니라 『효경대의』이므로 언해본은 <古 1328-2>뿐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효경언해』에 나타나는 표기, 음운, 어휘 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으나 한자음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한자어에 대해서도 판본 간의 언해 양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만력 18년(1590)의 내사기가 있는 원간본(이하 만력본)과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이하 강희본)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목록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과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양상과 이본 간의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희본보다 후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장서각 소장본(K1-140)과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단, 방점은 만력본에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성조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례에 방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 과정에서 만력본은 『조선학보』 27집에 수록된 영인본을, 강희본은 규장각본(古 1328-2)과 계명대본((고) 180.79 효경언ㅎ)을 활용하였는데, 규장각본은 원본을 확인하였으며 계명대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Ⅲ.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

만력본을 기준으로 언해문에서 한글로 쓰인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만력본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

가. 감히(敢)<17b>, 공경(恭敬)<3a>, 귀신(鬼神)<12b>, 뎨ᄌᆞ(弟子)<1b>, 록(祿)<6a>, 빅셩(百姓)<1b>, 법(法)<3a>, 병(病)<16b>, 샹(傷)<25a>, 셩인(聖人)<1a>, 엄(嚴)<22a>, 욕(辱)<20b>, 인(因)<10b>, 졔(祭)<14a>, 졔후(諸侯)<11a>, 존(尊)<14b>, 죄(罪)<17b>, 태우(大夫)<24a>/卿경태우<5a>, 텬하(天下)<1b>, 쳡(妾)<12a>, 취(取)<6a>, 친(親)<1b>, 피(辟)<1b>, 해로온(害)<12b>, 형(兄)<7b>, 후(後)<16b>

나. 가신(家臣)<12a>, 각각(各各)<14b>, 간(諫)<24a>, 거상(居喪)<24b>, 곡셕(穀食)<6b>, 곡셕신(穀食神)<4a>, 공슌(恭順)<6a>, 공양(供養)<17b>, 교만(驕慢)<3b>, 극진(極盡)<26b>, 근본(根本)<2a>, 도리(道理)<26b>, 도장문(--門)<22a>, 동뉴(同類)<17a>, 됴회(朝會)<14a>, 싸신(-神)<4a>, 례도(禮度)<9a>, 례졀(禮節)<8b>, 류(類)<18a>, 만일(萬一)<22b>, 모시칙(毛詩冊)<8a>, 민달(敏達)<1b>, 법도(法度)<3b>, 병잠개(兵--)<17b>, 봉양(奉養)<16b>, 분묘(墳墓)<26a>, 상ᄉᆞ(喪事)<16b>, 슌죵(順從)<19a>, 시졀(時節)<26a>, 신하(臣下)<11a>, 안보(安保)<4a>, 양(羊)<17b>, 엄슉(嚴肅)<16b>, 요구(要求)<18a>, 요졀(要切)<1b>, 원망(怨望)<5a>, 위틱(危殆)<3b>, 음악(音樂)<9a>, 의탁(依托/依託)<4a>, 일만(一萬)<11a>, ᄌᆞ뢰(資賴)<5b>, ᄌᆞ셔(仔細)<20a>, ᄌᆞ식(子息)<9b>, ᄌᆡ믈(財物)<3b>, ᄌᆡ변(災變)<12b>, 지졔(裁制)<3b>, 졈복(占卜)<26a>, 졍(正)<19a>, 졍ᄉᆞ(政事)<10b>, 졔긔(祭器)<26a>, 조샹(祖上)<20b>, 존엄(尊嚴)<13b>, 존칭(尊稱)<1b>, 존졀(撙節)<6b>[4], 지극(至極)<1b>, 튱셩(忠誠)<6a>, 패망(敗亡)<17a>, 편안(便安)<9a>, 한가(閒暇)<1a>, 힝실(行實)<5a>, 현인(賢人)<만주:8a>, 형벌(刑罰)<18a>, 화동(和同)<1b>, 화환(禍患)<12b>, 환란(患亂)<7a>, 흠향(歆享)<12b>

4) 撙존節졀<女訓下:40a>

(1가)는 한자로 표기된 형태도 문헌 내에 나타나는 한자어들이다. 가령, '감히'는 '敢감히<만:2b>'가, '공경'은 '恭공敬경<만:22b>'이 원문이나 언해문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피(辟)'는 원문의 '辟席<만:1b>'이 '돗글 피ᄒᆞ야'로 언해된 것이다. '辟'는 『효경간오』에서 '避'로 쓰이던 것이 『효경대의』에서 '辟'로 수정되고, 이것이 『효경언해』로 이어진 것인데, 『효경대의』에는 '辟音避'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언해문에서 '辟(梗脣三入昔幫/止脣三去寘滂)'는 중고음 '止脣三去寘滂'에 대응하는 '피ᄒᆞ야(辟)'로 쓰인 것이다.

(1나)에서 '의탁'은 언해 문헌에서 대체로 '依托<능엄4:25a, 육조下39b>'으로 나타나지만, '의託홈을<가례10:47b>'도 확인되므로, '의탁'의 '탁'은 '托'과 '託'이 혼용되었던 듯하다.

'ᄌᆡ:졔'는 원문의 '制節謹度ᄒᆞ면<만:3b>'이 'ᄆᆞᄃᆡ를 ᄌᆡ:졔ᄒᆞ·며 법도를 삼가면'으로 언해된 것인데, 'ᄌᆡ:졔'에 대응하는 한자는 '裁制'로 추정된다. '裁制'는 '제재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로, '裁'의 중고음은 '蟹開一平咍從'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人君裁制一國(성종 13년 5월 12일)', '無以裁制, 則物欲日滋(연산 3년 7월 11일)' 등의 쓰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2)는 (1)의 한자어가 강희본에서 달리 언해된 경우이다. 이하 용례에서 강희본의 출처가 만력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강희본의 출처를 별로도 제시하지 않는다.

(2)	원문	만력본	강희본
가.	爭	간ᄒᆞᄂᆞᆫ(諫)<23b, 24a(4)>	ᄃᆞ토ᄂᆞᆫ
		간티(諫)<24a(2)>	ᄃᆞ토디
		간ᄒᆞᄂᆞ니(諫)<24b>	ᄃᆞ토ᄂᆞ니
	要	요졀ᄒᆞᆫ(要切)<1b, 9b(2)>	종요로온
나.	禮	례졀(禮節)<8b>	례도(禮度)
	樂	음악(音樂)<25a>	풍뉴(風流)

	刑	죄(罪) 닙고<17b>	형벌ᄒᆞ고(刑罰)<17a>
	和	화동ᄒᆞ며(和同)<1b>	화ᄒᆞ며(和)
다.	法	법다온(法)<4b(2)>	法법의
		법이(法)<5a>	法법이
	妾	쳡의게도(妾)<12a, 22b>	妾쳡의게도<11b, 22a>
	臣	가신(家臣)<12a, 22b>	臣신<11b, 22a>
	養	공양홈을(供養)<17b>	養양홈을<17a-17b>
	義	도리(道理)<26b>	義의
	禮	례도에서(禮度)<9a>	禮례만<8b>
	敏	민달티(敏達)<1b>	敏민티
	兵	병잠개예 해 ᄒᆡ이ᄂᆞ니<17b>	兵병ᄒᆞᄂᆞ니<17a>
	養	봉양홈애ᄂᆞᆫ(奉養)<16b>	養양홈애ᄂᆞᆫ
라.	宅兆	분묘(墳墓) 터ᄒᆞᆯ<26a>	宅ᄐᆡᆨ兆됴ᄅᆞᆯ
	順	슌죵ᄒᆞ고(順從)<19a>	順슌ᄒᆞ고
	嚴	엄슉홈을(嚴肅)<16b>	嚴엄홈을
	善於樂	음악에서(音樂) 됴ᄒᆞᆫ 이<9a>	樂악만 善션ᄒᆞ니<8b>
	察	ᄌᆞ셔ᄒᆞ시며(仔細)<20a>	察찰ᄒᆞ시며
	匡	졍ᄒᆞ야(正)<19a>	匡광ᄒᆞ야
	亡	패망ᄒᆞ고(敗亡)<17a>	亡망ᄒᆞ고
	災害	ᄌᆡ변이며(災變) 해로온(害) 이리<12b>	災ᄌᆡ害해
	禍亂	화환이며(禍患) 어ᄌᆞ러운 이리<12b>	禍화亂란이
	然後	후에ᅀᅡ(後)<16b>	然연後후에사

(2가)는 만력본의 한자어가 강희본에서 고유어로 언해된 것이고, (2나)는 어휘의 차이는 있지만 강희본에서도 만력본과 같이 한자어가 한글로 표기된 경우이다. 그리고 (2다, 라)는 강희본에서 아예 한자가 병기되는 형식으로 수정된 것인데, (2다)의 경우는 만력본에서도 원문과 동일한 한자로 언해되었기 때문에 강희본에서 한자만 추가되었지만, (2라)와 같이 원문과 달리 언해된 만력본의 한자어는 강희본에서 원문의 한자어와 동일하게 바뀌고 여기에 한자가 병기되는 형식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강희본에서 더 직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효경언해』의 한자음

이 장에서는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과 Ⅲ장에서 확인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만력본과 강희본의 한자음 성모와 운모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피고, 방점이 반영된 만력본에서 성조가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오탈자 검토

(3) 者샤[→쟈]<만:6b9, 9a8, 17a6>, 孰숙[→슉]<만:7b4>, 善선[→션]<만:8b2>, 懽환[→환]<만:11a3>, 行항[→힝]<만:13b2>, 其거[→기]<만:16b3>, 兄헝[→형]<만:21a9>

(4) 母모<강:2b3>, 患한[→환]<강:6b6>, 釋석[→셕]<강:8a5>, 行힝[→힝]<강:9b10>, 諸셔[→져]<강:14a7>, 兄헝[→형]<강:20b2>, 士:ᄉ<강:21b10>, 傷상<강:25a5>, 빅셩(百姓)<강:10a9>

(3)은 만력본, (4)는 강희본의 오탈자로 판단되는 한자음인데,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만력본은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3)에서 '行'은 다음자(多音字)로, '힝' 또는 '항'으로 쓰이는데, <만:13b2>에서는 두 표기가 혼합된 형태로 출현하고, 후대본에서는 모두 '힝'으로 나온다.

(4)에서 '母'는 그 주음이 언해문의 형식에 맞지 않게 한 칸 위에 쓰여 있고, '士:ᄉ'는 강희본에서 유일하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인데, 이들은 후대본에서 모두 형식과 원칙에 맞게 수정된다.

'傷상'은 '샹'으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1회 '상'으로 출현한 것으

로, 후대본인 장서각본에서도 교정되지 않고 ‘상’으로 나온다. 이는 단순 오류일 수도 있지만 치음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는 현상이 반영된 표기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강희본의 언해문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빅셩(百姓)’이 1회 확인되는데, 계명대 소장본에는 ‘빅’을 ‘빅’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그 외 한자음들은 모두 단순한 오탈자로 추정되며, 장서각본에서는 표기 원칙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졌다.

2. 성모(聲母)

먼저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에 나타나는 표기 차이는 다음과 같다.

(5) 가. 若샥<만:22b>/약, 如셔<만:7b>/여, 汝셔<만:1a>/여, 然션<만:3b>/연, 辱욕<만:20a>/욕<강:19b>, 二ㅅ<만:9b>/이, 而ㅅ<만:3a>/이, 人신<만:2b>/인, 日실<만:7a>/일
나. 욕홀까(辱)<만:20b>, 셩인(聖人)<만:1a, 14a>, 현인(賢人)<만:8a>

(6) 彰 장<만:19b7>/챵<강:19b4>

성모 표기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日母가 만력본에서는 ‘ㅿ’으로, 강희본에서는 ‘ㅇ’으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나)와 같이 언해문에서 한자어가 한글로 표기된 경우에는 ‘ㅿ’이 아닌 ‘ㅇ’으로 쓰인다. 이는 한자에 주음된 음과 한글로 표기된 한자음에 대한 표기 원칙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章母는 ‘ㅈ’에 대응되지만 (6)의 ‘彰’은 한국한자음에서 ‘ㅊ’으로 나타나는데, 만력본에서는 ‘장’, 강희본과 장서각본에서는 ‘챵’으로 주음되어 있다. 만력본의 ‘彰장’은 ‘장’을 음으로 가진 ‘章, 獐’ 등에 유추되었거나

章母의 표기 원칙에 따라 주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 1>은 다음자(多音字)들을 정리한 것이다.[5)]

〈표 1〉『효경언해』의 다음자(多音字)

字	音	만력본	강희본
樂	락	致티其기**樂락**<16b> 不블**樂락**<24b>	致티其기**樂락**<16a> 不블**樂락**<24b>
	악	莫막善션於어**樂악**<8b> 聞문**樂악**<24b> 음**악**(音樂)<9a, 25a>	莫막善션於어**樂악**<8b> 聞문**樂악**<24b> **樂악**만 善션ᄒᆞ니 업고<8b>
惡	악	匡광救구其기**惡악**<18b>	匡광救구其기**惡악**<18b>
	오	**惡오**於어人신<2b> 無무怨원**惡오**<4b>	**惡오**於어人인<2b> 사ᄅᆞᆷ의게 **惡오**티 아니ᄒᆞ고<3a> 無무怨원**惡오**<4b>
則	즉	則즉<5b,…>	則즉<5b,…>
	측	**則측**之지ᄒᆞᄂᆞ니<10a> **則측**天텬之지明명<10a>	**則측**之지ᄒᆞᄂᆞ니<10a> **則측**天텬之지明명<10a>

‘樂’은 ‘즐기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락’, ‘노래, 음악’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악’으로 나타나며, ‘惡’은 ‘악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악’,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오’로 나타난다. 또한 ‘則’은 ‘곧’의 의미로 쓰일 때는 ‘즉’, ‘법’의 의미로 쓰일 때는 ‘측’으로 음이 구별되는데, 『효경언해』에서는 2회 ‘측’으로 나타나며 <표 1>에 제시한 용례가 언해문에는 ‘법받ᄂᆞ니<10b>’, ‘하ᄂᆞᆯ희 ᄇᆞᆯ금을 법바ᄃᆞ며<10b>’로 언해되어 있다.

다음으로 (7)은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한자음이 한자에 주음된 것과 달리 나타나는 경우이다.

5) ‘惡’의 한자음은 성모의 차이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함께 다루기로 한다.

(7)	원문	만력본	강희본
가.	類	동뉴(同類)<17a, 17b>	동뉴(同類)<17a(2)>
	流	-	풍뉴(風流)<25a>
나.	大夫	卿경大대夫부<4b>	卿경大대夫부<4b>
		卿경태우<5a>	卿경태우<5a>

(7가)는 'ㄹ'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인 來母字 '類, 流'가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서 'ㄴ'으로 나타나는 용례이다. 이들은 'ㄹ'의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것인데, 『효경언해』에서 來母字가 비음화될 환경에 놓인 경우는 (7가)에 제시한 용례가 전부이고 모두 비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나온다. 곧,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는 음운 현상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7나)의 '大夫'는 한자음이 한자에 주음된 경우에는 '卿경大대夫부'가 되지만, 언해문에서는 '卿경태우'로 나타난다. 우선 '大'는 『집운(集韻)』에 '他蓋切'로도 나오지만, '夫'가 '우'로 쓰인 것은 'ㅐ'이 모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탈락하는 우리말의 음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준환 2008:58, 『역주효경언해』 2014:65).

추가로 장서각본에는 구개음화나 치음 뒤에서의 'j' 탈락이 반영된 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8) 가. 長댱<만:19b5> / 長댱<강:19b2> / 長쟝<장:19b2>
나. 節졀<만:6b1> / 節졀<강:6a9> / 節절<장:6a9>

(8가)는 장서각본에서 '長'이 구개음화된 '長쟝'으로 출현한 것이며, (8나)는 '節졀'의 반모음 'j'가 치음 뒤에서 탈락하여 '절'로 쓰인 것이다. 규범적 성격을 지닌 유경 언해의 한자음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음운 현상이 반영되지 않지만, 후대본을 통해 구개음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3. 운모(韻母)

만력본에서는 종성 표기에 ‘ㅇ’이 쓰이는 데 반해 강희본에서는 ‘ㅇ’으로 바뀌는데, 이는 한자음 표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강희본에는 종성에 ‘ㅇ’이 쓰인 용례도 확인된다.

(9) 가. 恐공<강:19b8>, 匡광<강:18b4>, 當당<강:24a6>, 長댱<강:19b2, 21a8>, 中듕<강:19a4>, 令령<강:22b10, 23a9>, 忘망<강:18b7>, 名명<강:21a10, 21b10, 23a9>, 明명<강:19a10, 19b1, 19b4>, 上샹<강:19b3>, 相샹<강:18b5>, 揚양<강:21b10>, 爭징<강:23a3>, 章쟝<강:21a4, 21b9, 22b1, 24b1, 24b2>, 從죵<강:23b4>, 彰챵<강:19b4>, 忠듕<강:18b3, 21a7>, 行힝<강:21a10>, 兄형<강:21a7, 21b4>
나. 듕셩<강:21b3>, 공경<강:22b7>, 공슌<강:21b4>, 거상<강:24b8>
다. 싱각<강:18b10>, 수랑<강:22b7>

(9가)는 강희본에서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의 종성이, (9나)는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종성이 ‘ㅇ’으로 표기된 것이고 (9다)는 한자어가 아닌 어휘에서 ‘ㅇ’이 쓰인 경우이다. 이처럼 강희본에는 ‘ㅇ’으로 표기된 용례가 적지 않으나, 이들은 18~24장에서만 출현한다. 장서각본에서는 ‘明명<19b1>, 上샹<19b3>’을 제외하고는 모두 ‘ㅇ’으로 수정되었다.

아래의 (10)은 만력본과 강희본에서 한자음에 조사 ‘ㅣ’가 결합된 형태로 출현하는 용례인데, 이 같은 표기는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서만 나타나고, 한자가 병기된 경우에는 모두 조사와 분리되어 있다.

(10) 뎨지(弟子)<1b>, 태위(大夫)<24a>, 류(類)<만:18a/강:17b>, 례되(禮度)<22a>, 신해(臣下)<만:9b/강:9a, 24a>, 졍시(政事)<10b, 15a>,

졍ᄉᆡ라(政事)<만:25b/강:25a>

다음 <표 2>는『효경언해』에서 遇攝 '諸, 取'과 曾攝 '食'의 출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遇攝 '諸, 取', 曾攝 '食'의 표기 양상

攝	字	音	만력본	강희본
遇攝	諸	져	**諸져**侯후<3b, 4a, 14a, 23a, 24a>	**諸져**侯후<14a, 23a>
		졔	**졔**후(諸侯)<11a>	**諸졔**侯후<3b, 4a, 23b> **졔**후(諸侯)<11a>
	取	츄	取츄<5b(2)>	取츄<5b(2)>
		취	**취**ᄒᆞ고, **취**ᄒᆞᄂᆞ니<6a>	**취**ᄒᆞ고, **취**ᄒᆞᄂᆞ니<6a>
曾攝	食	식	食식<24b, 25a>	食식<24b, 25a>
		셕	곡**셕**신(穀食神)<4a> 곡**셕**(穀食)<6b>	곡**셕**신(穀食神)<4a> 곡**셕**(穀食)<6b>

한국한자음에서 遇攝 魚韻의 '諸'는 'ㅕ~ㅖ', 麌韻의 '取'는 'ㅠ~ㅟ'로 혼기된다. '諸'는 만력본에서 한자에 주음된 경우에는 모두 '져'로 나오고, '諸侯'가 한글로 표기된 경우에만 '졔'로 쓰이는 데 반해, 강희본에서는 한자에 주음된 경우에도 '졔'로 쓰이는 용례가 많으며, 장서각본에서는 주석에 해당하는 '諸져侯후<14a>' 외에는 모두 '졔'로 나타난다. 후대로 갈수록 '졔'로 주음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取' 역시 'ㅟ'로 쓰이는 것은 한자어가 한글로 표기된 경우이다.[6] 'ㅕ~ㅖ', 'ㅠ~ㅟ'로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초성과 반모음 'j'의

6) 이밖에도 遇攝에 속하는 '除'는 두 판본에서 모두 '除뎌ᄒᆞ면<17a>'으로 나타나지만, 규장각본에는 '뎌'에 묵으로 'ㅣ'를 추가한 흔적이 있다.

구개성이 '졔, 취'형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食'은 한자에 주음된 경우에는 '식', '穀食'이 한글로 표기된 경우에는 '곡셕'으로 나타난다. '셕'은 '식'보다 고층(古層)이거나(河野六郎 1968:197), 입성 운미의 경구개성이 모음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伊藤智ゆき 2007:206-213), '셕'과 '식'이 공존하다가 점차 '셕'이 '식'으로 대치된다.

이상과 같이, 운모 표기에 있어서도 만력본에서는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은 예외 없이 원칙에 부합하는 표기가 이루어졌으며, '졔(諸), 취(取), 셕(食)'은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서만 나타난다. 강희본 역시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종성 'ㅇ'이나 '諸졔侯후'와 같은 용례가 출현하는 것은 만력본에 비해 정제되지 않은 면모라 할 수 있다.

4. 성조(聲調)

한어 중고음의 평성과 입성은 대부분 한국한자음의 L과 H에 일대일로 대응되지만, 중고음의 상·거성은 한국한자음에서 R 또는 H로 반영되며, 분류되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다. 방점은 만력본에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고음의 상·거성이 만력본에 나타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며, 그 대상은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으로 한정한다. 중고음 상·거성이 만력본에 반영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7]

7) ③, ④에서 한자음 위에 붙인 숫자는 출현 횟수를 표시한 것이며, 그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한자음 옆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① R로 나타나는 글자

敢:감, 愷蓋:개, 擧:거, 見:견, 恐:공, 寡:과, 敎:교, 口救具:구, 簋:궤, 鬼貴:귀, 謹:근, 內:ᄂᆡ, 大:대, 著:뎌, 傳:뎐, 弟悌帝:뎨, 道度:도, 重仲:듕, 亂:란, 理離利:리, 滿慢萬:만, 命:명, 母侮:모, 廟:묘, 武:무, 問:문, 美未:미, 配:ᄇᆡ, 病:병, 補保簠:보, 富:부, 備:비, 死祀士四:ᄉᆞ, 社:샤, 上:샹, 庶:셔, 善:션, 性姓聖:셩, 世:셰, 所:소, 送:송, 小:쇼, 順:슌, 始是示侍:시, 愼:신, 甚:심, 愛:ᄋᆡ[8], 也:야, 養:양, 語:어, 諺:언, 五惡:오, 踊用:용, 友右又:우, 怨:원, 有幼:유, 俋義:의, 以已:이, 在:ᄌᆡ, 祭制:졔, 助:조, 罪:죄, 衆:즁, 盡進:진, 取:취, 醜:취, 退:퇴, 致:티, 避:피, 海解:ᄒᆡ, 下:하, 陷:함, 害:해, 享:향, 顯:현, 禍:화, 患:환, 況:황, 後厚后:후, 毁:훼, 汝:셔, 二:ㅅᆡ

② H로 나타나는 글자

故·고, 孔·공, 九·구, 地·디, 令·령, 禮·례, 敏·민, 本·본, 父·부, 受首守·슈, 謂·위, 子自字·ᄌᆞ, 者·쟈, 政·졍, 厝·조[9], 旨至·지, 此·ᄎᆞ

③ R, H로 나타나는 글자

可:가[10]/·가<21b6, 21b8>, 悖:패<15b8>/·패<15b6>
過:과<25b3>/·과<4b5, 18b6>, 坐:좌<1a5>/·좌<2a5>, 體:톄<2b3>/·톄<2a5, 2b2>

④ R, L로 나타나는 글자

敬:경[21]/경<7a8>, 事:ᄉᆞ[27]/ᄉᆞ<26a10>, 矣:의[12]/의<18b9>, 孝:효[77]/효<20a3>
長:댱[3]/댱<3b3, 3b4>, 行:힝[9]/行힝[6]

⑤ R, H, L로 나타나는 글자

爭:ᄍᆡᆼ[7]/·ᄍᆡᆼ<23b5>/ᄍᆡᆼ<17a3, 17a5>

---

8) '愛<5b3>'는 성조가 불분명하다.
9) L일 가능성도 있다.

위에 분류된 것과 같이, 중고음 상·거성은 한국한자음에서 R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R이나 H 어느 한쪽으로만 쓰이지 않고 ③과 같이 R 또는 H로 나타나는 글자들이 존재하는데, 『효경언해』에서는 '可, 悖, 過, 坐, 體'가 확인된다.

'可'는 모두 '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H는 <21b>에서만 2회 출현하므로 오류로 생각된다. '悖' 역시 동일한 의미로 쓰이면서도 R(悖:패禮·례)와 H(悖·패德·덕)으로 1회씩 달리 나오는데, 『소학언해』, 『대학언해』 등에서 대부분 R로 나타나므로 H로 쓰인 것이 오탈자일 가능성이 있다.

'過'는 '喪상不·블過:과三삼年년(거상을 三삼年년의 넘구디 아니홈은)'과 같이 '지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R, '口:구過·과(입 허믈), 補:보過·과(허믈 깁ᄉᆞ옴을)'과 같이 '허물'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H로 나타난다. '坐'는 R과 H로 쓰인 용례가 1회씩 나타나며 둘 다 '앉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R인 경우에는 '侍:시坐:좌ㅣ러시니'와 같이 '이다'류 구결이, H인 경우에는 '復·복坐·좌ᄒᆞ라'와 같이 'ᄒᆞ다'류 구결이 달려 있다. 혹은 각각 '坐'에 선행하는 한자음의 성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體'는 원문의 '身신體·톄'가 언해문에서 '몸과 體·톄'로 언해되면서 동일하게 H로 쓰인데 반해, R은 주해에서 '四:ᄉᆞ體:톄'로 쓰인 것이다.

다음으로 ④는 R이나 L로 나타나는 글자들이다. '敬, 事, 矣, 孝'의 L은 1회씩 나타나므로 오탈자로 생각된다. '長'은 '事:ᄉᆞ長:댱, 長:댱幼:유, 順:순可:가移이於어長:댱'과 같이 '어른'이라는 의미일 때는 R, '長댱守·슈貴:귀오, 長댱守·슈富:부ㅣ니'와 같이 '길다'라는 의미일 때는 L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行'은 '행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R, '행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L로 나타나 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⑤의 '爭'은 성조가 R, H, L로 나온다. 우선 R은 '爭'이 '爭:징臣신(간ᄒᆞᄂᆞᆫ 신하), 爭:징友:우(간ᄒᆞᄂᆞᆫ 벋)' 등과 같이 '간하다, 논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 H로 출현하는 1회는 R과 마찬가지로 '不·블爭·징於어君군(님금ᄭᅴ 간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에서 '간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는 선행 한자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不·블爭:징於어父·부'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R로 쓰인 용례도 확인되므로 오류로 추정된다. 그리고 '爭'이 L일 때는 '不·블爭징(ᄃᆞ토디 아니ᄒᆞᄂᆞ니), 爭징則·즉兵병(ᄃᆞ토면 병잠개예 해 히이ᄂᆞ니)'와 같이 '다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Ⅳ. 결론

이 글에서는『효경언해』의 만력본과 강희본에 나타나는 한자음을 검토하여 그 출현 양상과 차이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뿐 아니라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Ⅲ장에서는 만력본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를 정리하여 각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가 강희본에서 원문과 동일한 한자로 수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만력본과 강희본의 한자음을 성모, 운모, 성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성조는 만력본에서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만력본에서는 日母를 'ㅿ'으로 표기하고, 종성에 'ㆆ'을 사용하였지만, 강희본에서는 日母와 종성 'ㆆ'을 'ㅇ'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그

런데 강희본의 18~24장에는 종성이 'ㆆ'으로 쓰인 용례가 적지 않게 나오며, '諸侯'의 주음에 있어서도 만력본에서는 일관되게 '諸져侯후'로 나타나는 반면, 강희본에서는 '諸져侯후, 諸졔侯후'가 혼용된다. 즉, 강희본의 주음이 만력본보다 정제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경우에는 만력본에서도 日母를 'ㅇ'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에 주음된 음과 표기 원칙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두 판본 모두에서 '동뉴(同類), 태우(大夫), 곡셕(穀食)' 등과 같이 음운 현상이 반영된 표기나 예외적인 한자음이 쓰이며, '뎨ᄌᆡ(弟子), 신해(臣下)' 등과 같이 조사가 선행 한자음과 결합된 형태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한자에 주음된 한자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조는 한어 중고음의 상·거성이 만력본에 나타나는 양상을 '①R로 나타나는 글자, ②H로 나타나는 글자, ③R, H로 나타나는 글자, ④R, L로 나타나는 글자, ⑤R, H, L로 나타나는 글자'로 분류하고, 같은 글자가 다른 성조로 나타나는 것이 오류인지, 용법 차이에 의한 것인지 논의하였다. 성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충구, 「漢字語(方言) 속의 特異 漢字音 -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 88집, 국어학회, 2018, pp.3-32.

권인한, 『중세한국한자음훈집성』, 제이앤씨, 2005.

_____, 『中世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硏究』, 박문사, 2009.

_____, 「한국한자음의 역사」, 『국어사 연구 1』, 태학사, 2019, pp.247-336.

_____, 「『孝經諺解』 硏究」, 『논문집』 8집, 우석대학교, 1986, pp.3-29.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여찬영, 「언해서 『효경언해』의 일연구」, 『한국말글학』 20집, 한국말글학회, 2003, pp.99-125.

_____, 「『효경언해』의 번역비평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7집, 언어과학회, 2003, pp.197-222. (UCI : G704-000944.2003.27..011)

_____, 「『효경언해』의 원문에 대한 연구」, 『어문학』 84집, 한국어문학회, 2004, pp.99-122.(UCI : G704-000112.2004..84.003)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한국학』 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59-85.(UCI : G704-000772.2012.35.1.010)

이준환,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지영, 「『孝經諺解』 이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학』 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87-114. (UCI : G704-000772.2012.35.1.005)

정태현, 『(懸吐完譯) 孝經大義』, 傳統文化硏究會, 199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효경언해』, 2014.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硏究』, 天理: 天理時報社, 1968. (한국어역: 이진호, 『한국한자음의 연구』, 역락, 2010)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の硏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2007. (한국어역: 이진호, 『한국한자음 연구』, 역락, 2011.)

『孝經諺解』, 『조선학보』 27집, 조선학회, 1985.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A Study of Sino-Korean in *Hyogyeong-eonhae*

Yu, Keu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ino-Korean between *Manryuk* edition(printed in 1590) and *Kanghee* edition(printed in 1666) of *Hyogyeong-eonhae*. Firstly, in the case of Sino-Koreans which were marked right next to the Chinese character, Sino-Koreans in *Manryuk* edition are more refined than those in *Kanghee* edition. 日母 was marked as 'ㅿ', and 'ㆁ' was used for final consonant in *Manryuk* edition, On the other hand, 日母 and final consonant 'ㆁ' are marked as 'ㅇ' in *Kanghee* edition. However, there are many examples in which the final consonant 'ㆁ' was wirtten as 'ㆁ' in *Kanghee* edition. Secondly, in the case of Chinese characters written in Korean, 日母 was also marked as 'ㅇ' in *Manryuk* edition and in both editions, examples reflecting phonological phenomena appeared such as '동뉴(同類), 태우(大夫)'. Finally, regarding the tone, we discussed the appearance patterns of 上聲 and 去聲 of Ancient Chinese in *Manryuk* edition.

Key Words : Confucian scripture, *Hyogyeong-eonhae*, Sino-Korean, Sino-Korean word, Initial, Final, Tone

유근선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전자우편 : goodyuu@daum.net

이 논문은 2022년 05월 01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